

## 원전수출 프로젝트... 남아공 '스타트'

- 지경부, 현지서 '협력 포럼'
- 올 폴란드 · 헝가리 등 발주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해 남아공 외에 폴란드 헝가리 등도 원전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어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한·남아공 원전협력포럼'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연내 발주 예정인 남아공 신규 원전 2기(각 150만kW급) 수주를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유일의 원전 보유국으로 1980년대 중반 95만kW급 원전 2기를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하는 원전 2기 입찰에는 한국의 한국전력 컨소시엄 외에 프랑스 아레바, 미국·일본의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러시아 로사톰, 중국 광동원전그룹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남아공은 2030년까지 960만kW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중기 전력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아랍에미리트(UAE) 수준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전략지역으로 설정해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UAE 원전 수출로 물꼬를 튼 해외 원전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작년 3월 한국이 사실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20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원전건설 사업은 현재 후보지 검토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터키 원전사업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 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터키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한국과 중국을 놓고 계약 조건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말 핀란드의 원자력발전업체 TVO가 발주하는 '오킬로토 4 호기 원전' 건설 입찰서를 제출했다. TVO사는 기술력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추진현황

대상국	기수	진행상황
베트남	100만kW급 2기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중
터키	150만kW급 2~4기	정부협상 중
핀란드	150만kW급 2기	한국수력원자력 입찰서 제출
남아프리카 공화국	150만kW급 2기	올해 중 입찰 참여 검토
폴란드	150만kW급 2기	올해 중 입찰 참여 검토
헝가리	150만kW급 2기	올해 중 입찰 참여 검토

## 한국원자력연구,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기술 세계 최초 개발

국내 연구진이 소형 가속기로도 출력이 높은 극초단 테라헤르츠파를 일으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는 전신검색기를 만들 수 있어 보안검색 분야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자빔기반방사선연구센터가 원뿔형 발생장치를 이용해 장치의 크기는 100분의 1로 줄이고 출력은 100배 높이는 테라헤르츠 고출력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테

라헤르츠파는 주파수 영역이 0.1~10MHz인 전자기파로 엑스선처럼 투과력이 강하면서도 에너지는 엑스선보다 낮아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



박근혜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현 부처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차분한 성격으로 실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행시 25회 출신으로 실·국장 시절에도 일선 과장급 업무를 본인이 직접 챙길 정도로 실무를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통상 업무를 두루 거쳐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산업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수출과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 사무관 시절에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1과, 상공부 수출관리과, 상공자원부 수출과를 거치면서 통상 업무에 잔뼈가 굵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과 델라웨어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냈고, 전문 서적을 자주 탐독할 정도로 학구적인 성향도 있다. 원만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을 중시해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경북 경산(56·행시 25회) ▲부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 한전, 중소기업 지원... 동반성장 강화

### ● 캡코브랜드로 시장개척 도와 R&D 비용·긴급자금도 지원

한국전력이 협력업체의 제품 품질보증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긴급지원자금 1200억원 지원, 3차 협력업체까지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한전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동반성장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협력업체 진입장벽 완화 ▲지원사업 강화 등 15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KEPCO(한전) 보증 브랜드' 제도(로고)를 도입, 중소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브랜드 파워는 약하지만 수출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한전의 해외 인지도를 활용해 수출을 돕겠다는 전략이

다. 올해 1차적으로 50곳을 선정할 후 매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가 한전과 공동으로 해외사업을 개발하는 한전-중소기업 해외사업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 동반진출도 추진한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핵심 경쟁력 보유를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을 현재 75%(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억원 한도로 100%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2차 협력사까지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관리 전용계좌'와 실시간 지급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총 1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KEPCO 브랜드 인증제 등은 중소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전은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가격정산상한제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최종 승인했다.

정산상한제는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계가격이 원가보상원칙에 따라 고원가 발전기를 기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한계 가격 이하의 발전기들은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기 고장 증가 등으로 설비에비력이 부족해지고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산가격 상한은 효율적인 가스터빈 발전기(용량가격 기준 발전기)의 LNG 연료비를 반영해 매일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이 2만kW초과인 대규모 발전기)이며, 신재생, 소규모 집단에너지, 구역전기사업자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중앙급전발전기 보유 민간사업자는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등 16개사다.

지경부는 정산상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 3월 1일부터 시행

## 신재생에너지, 해외서 활로 찾는다

### ● 국내 여론 · 규제 돌파구

국내 발전사들이 해외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규제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외사업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들은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 개발은 한국전력이 가장 선도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1월 요르단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 풍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권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 몽골, 이집트,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추가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몽골 살키드 풍력발전 참여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집트에서는 수에즈만 풍력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풍질 조사를 마치고 올 상반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전은 해상발전을 위해 스웨덴에서 정보 수집과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에서도 정밀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남미의 페루에서는 수력시장 진출을, 케냐에서는 지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발전 자회사들도 해외 신재생 에너지 개척을 시작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미국 네바다주 볼더시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며, 태국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서부발전도 지난해 2월 미국 네바다주 볼더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계약으로 첫발을 내디딘 뒤, 동남아 등 현재 화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태양광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유럽 진출 프로젝트인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수행한 뒤, 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내 발전사들의 이 같은 해외 시장 타진은 신재생 에너지 국내 개발이 적합 부지 확보, 각종 규제,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발전소 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자원 고갈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전 ‘안전해석코드’ 국산화 성공

### ● 올해부터 원전 설계에 활용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섭)이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번째로 원전 원천기술인 ‘안전해석코드’(SPACE)를 국산화했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안전해석코드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원전을 설계할 때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이다. 한국은 1978년 원전을 도입한 후 해외 원전업체로부터 안전해석코드를 구매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사업’(Nu-Tech 2012)에 착수, 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자력산업계와 공동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원전 안전해석코드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과 원자로냉각재펌프는 각각 2010년, 2012년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올해부터 안전해석코드를 실제 원전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병국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원전 안전해석코드의 국산화로 핵심기술을 완벽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이산화탄소 2만톤에 달하는 탄소배출권(CERs)을 영국업체 에코시큐리티에 판매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남동발전이 판매하는 배출권 가격은 톤당 16.2유로(2만2680원)다. 최근 유럽에서 배출권이 톤당 0.2유로(280원) 이하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81배 이상의 고가 판매 계약이다.

남동발전은 최근 배출권 가격이 폭락해 약정을 일부 변경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동발전은 삼천포·영흥 소수력 발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으로부터 8만5000톤의 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말 영흥화력 풍력실증단지(22MW)와 3개 신재생에너지 발전(7.6MW)을 UN에 CDM 사업으로 등록했다.

## 남동발전, 탄소배출권 영국업체에 판매

### ● 동반성장 3.0 뉴패러다임 발표

한국중부발전이 동반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즉각 실천에 나섰다.

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은 지난 1월 30일 서울 대치동 컨벤션 디아망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디자인하는 KOMIPO(중부발전 영문명) 2013 토크콘서트’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 추진전략인 ‘동반성장 3.0 뉴-패러다임’을 발표했다.

동반성장 3.0 뉴-패러다임은 중부발전이 그동안 펼쳐왔던 동반성장 추진 전략의 새로운 버전으로 일방적 지원인 동반성장 1.0, 성과공유를 포함한 동

## 중부발전 ‘상생경영’ 새지평 열다





반성장 2.0을 넘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중부발전의 동반성장 3.0 뉴-패러다임의 목표는 기업가 정신의 부활과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이며 3대 추진전략과 62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특별히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으로는 △건설공사 시 중소기업 2개사를 참여시키는 동반성장 1+2 제도 △인도네시아 사업지역 구매상담회 개최, 중부발전 파견 직원과의 구매상담 등 해외 판로 확대 △EPC 대기업 구매상담회, 신기술개발 및 국산화 개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의 산업용 펌프 제조기업인 (주)정우하이드로와 태양광 설비업체인 (주)KD파워를 릴레이 방문했다.

중소기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최 사장은 “중부발전이 해외 10여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서울북합·신보령·신서천 건설공사에 협력기업의 납품 등 기회를 부여할 것”임을 밝혔다.

## 서부발전-SK건설, 태국에 전기 판다

### ● 2019년 준공후 27년간 전력공급... 연간 1300억 수익 기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과 SK건설(사장 조기행)은 지난달 6일 라오스에서 개발중인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을 태국전력공사와 체결했다.

발전소 준공 후 27년간 세남노이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90%를 태국에 판매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라오스에 공급한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서부발전·SK건설 컨소시엄은 매년 1300억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운영·유지정비(서부발전) 및 발전소 공사(SK건설) 수익 이외에 추가로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서부발전과 SK건설의 보유지분은 각각 25%, 26%다.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1575GWh를 태국전력공사에 공급한다.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력발전소에서 태국 국경까지 약 160km에 달하는 송전시설도 신설한다.

태국은 최근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내 환경규제가 심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미약하여 발전설비 신설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력 수요량의 약 7%를 수입해 충당하고 있다. 접경 국가로서 수력 자원이 풍부한 라오스는 태국의 주요 전력수입국 중 하나다.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라오스 남부 볼라벤 고원을 관통하는 메콩강 지류를 막아 후웨이막찬·세피안·세남노이 등에 3개의 댐을 쌓고 낙차

가 큰 지하수로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사업이다. 발전 용량은 410MW로 국내 최대 규모의 충주댐과 맞먹다.

총 공사비는 6억8000만 달러(7500억 원)로, 발전소 건설은 올해 8월 착공해 2019년 준공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과 롯데건설(사장 박창규)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6일 내포신도시에서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포신도시는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지로 선정됐다.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2조6000억 원을 들여 개발면적 약 330만평, 인구 10만 명, 4만 가구 입주를 목표로 개발하는 신도시다.

남부발전은 롯데건설, 연료공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발전과 롯데건설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 개선을 위해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등으로 연료비 절감을 꾀하는 동시에 폐기물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총 발전용량 126MW, 열공급량 370Gcal/h규모의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 연간 90만7200MWh의 전력생산으로 연간 40만9782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 남부발전-롯데건설, 내포신도시 에너지 공급

한전KDN(사장 김병일)의 신년 업무보고 방식이 화제다. 한전KDN은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공기관이다.

2013년도 조직개편을 시행한 후 이번 주 조직별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했는데, 과거의 문서낭독 형식에서 탈피해 각 사업부문 처장들이 직접 경영진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단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경영현안으로 대두된 이슈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액션플랜까지 곧바로 도출하면서 기존에 3일 이상 소요되던 보고시간이 총 6시간으로 단축됐다.

김병일 사장은 “사업수지 악화 등 경영에 시련이 닥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전력SW시스템의 안정화와 새로운 IT환경 패러다임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사업구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전KDN 보고문화 탈바꿈

## 포스코에너지, 해외 신시장 개척 주력

포스코에너지(사장 오창관)가 신규발전 사업의 무게 중심을 해외로 옮긴다. 국내는 인천복합화력 증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발전부문 신시장을 해외에서 찾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준공 예정인 20만kW급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발전소를 비롯해 다수의 신규 해외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종합 에너지회사로 도약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의 해외시장 개척 행보는 국내 민간발전회사로는 이례적이다. 현재 포스코에너지를 제외한 민간발전회사의 해외 사업은 GS EPS가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만kW급 바이오메스 발전소뿐이다. SK E&S는 리스크 검토 단계다.

포스코에너지의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 발전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건설사와 발전공기업 컨소시엄 공세로 국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규모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발전사업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300kW 인도네시아 연료전지 사업과 30만kW 미국 네바다주 태양광 사업도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몽골 정부의 석탄열병합발전 사업의 일정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현지 발전 사이트를 돌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오 사장은 현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몽중 화력발전소 사업을 점검 중이다. 몽중 화력발전소 사업은 설비규모 120만kW로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해외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화력발전·연료전지·태양광의 각 사업부문에서 해외진출 성과로 글로벌 종합 에너지회사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규모인 베트남 몽중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오창관 사장의 귀국과 함께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LS전선 국내 첫 유럽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

LS전선(사장 구자은)이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유럽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달 5일 LS전선은 덴마크 국영 에너지회사이자 유럽 최대 풍력발전 업체인 동(Dong)에너지사와 1600만유로(약 230억 원) 규모의 150V급 해저케이블, 150.275kV급 지중 초고압케이블, 접속자재 공급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프리즈미안과 넥상스 등 선진 케이블 업체들의 주무대인 유럽 시장에서 해저케이블을 수주한 것은 LS전선의 제품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은 2008년 1조5000억 원에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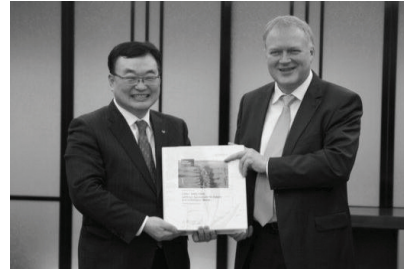
년 3조 원 규모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LS전선은 지난해 프랑스에 초고압케이블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해저케이블 공급계약까지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케이블 메이커로 자리를 잡게 됐다.

LS전선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은 동에너지가 영국 동남 해안지방인 웨스터모스트러프 지역에 건설하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에서 사용된다. 지중 초고압케이블은 해당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해 육지로 보낸 전기에너지를 육상의 송전소로 전달하는 데 쓰인다. 이와 함께 이번 수주로 LS전선은 세계 최고 선진 해상 풍력발전 시장인 유럽에 정식 진출하는 쾌거도 올리게 됐다.


유럽 해상 풍력발전시장은 2012년 135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에서 2020년 300억 달러(32조8000억 원)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LS전선 구자은 사장은“앞으로 신규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전선(사장 설윤석)은 싱가포르에서 3400만 달러 규모의 230kV급과 700만달러 규모 66kV급 초고압 턴키 프로젝트 2건을 잇따라 수주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전력청이 발주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최근 전력분야 등 사회인프라 투자사업의 증가로 노후 지중 송배전 라인 교체와 전력설비 확장 등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 대한전선, 싱가포르에서 4100만 달러 규모 수주